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70호

2025년 10월 12일(다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 로 연락 바랍니다. - 김미아 헬레나 Cell : 808.291.7811			



오늘의 미사

연중 제28주일

▶ 1독서 : 열왕기 하권 5,14-17 ▶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 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2독서 : 티모테오 2서 2,8-13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 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 복음 : 루카 17,11-19
--	---

① 10월 19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10월 19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고해성사는 미사 전후 고해소에서 있습니다.

④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⑤ 10월 16-17일, 21-24일까지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⑥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0월 19일~25일)

⑦ 매월 넷째 주 10월 26일(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헌'

⑧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① 교육분과 공지

교리교육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시간: 10월 12일(일) 오전 9:00,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② 영어교리 신청 공지

시간: 매주 (토) 오후 5시~6시 장소: 새신자 교리실

대상자: 세례, 견진 대상자로 대학생 이상, 외국인 배우자

문의: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마감: 11월 1일)



구역 및 단체

① 사목회 모임

일시: 10월 12(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② 카이무키 구역모임

일시: 10월 12(일) 오후 5:00

문의: 황성자 마리아(220-0822)

장소: 황성자 마리아 자택

③ 다락방 모임

일시: 10월 1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④ 연령회 모임

일시: 10월 19(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⑤ 마키키 구역모임

일시: 10월 18(토) 오후 5:30

문의: 김민자 아가다

907-570-2034

⑥ 와이파후 구역모임

일시: 10월 25(토) 오후 6시

문의: 안마르첼라 391-8347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재외동포 온라인 민원 설명회

대한민국 병무청 및 법무부에서 국적(국적이탈/국적상실 등) 및 병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민원 설명회를 **10.28(화) 19:00**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서는 **2025.10.20(월)까지** apphi@mofa.go.kr 로 참가신청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10월 25/26일 World Mission Sunday 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0월 4/5일 : \$11,411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17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512	\$6,385	\$1,243	\$271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

희년 특강 [제 13 강]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로마 4,16-25)

그리스도인의 희망: 말씀에 기초한 인내와 위로

로마서 15:1-6과 4:18-25을 중심으로 한 이 강론은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닌, 하느님의 말씀과 신실하심에 뿌리를 둔 구체적인 삶의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를 위해 인내와 위로라는 두 핵심 개념을 제시하며, 이것이 어떻게 희망의 현실을 밝히는지를 설명합니다.

1. 말씀에서 배우는 인내와 위로

- 인내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충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에도,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 위로는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는 은총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분의 자비와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는 희망을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 로마서 15:4-5는 성경이야말로 인내와 위로의 원천이며, 이를 통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강조합니다.

2. 공동체적 실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연대

-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로마 15:1). 이는 자기 의지가 아닌, 하느님께서 주시는 강함으로 가능합니다.
- 강함과 약함은 고정된 계급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약점을 짚어지고 위로하며, "한마음 한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마 15:6)를 이뤄야 합니다.
- 이 연대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내, 희망, 위로를 주시는 "강한 형제"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어깨에 기대어 치유받습니다.

3. 아브라함의 모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기

-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희망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그의 믿음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하느님의 능력에 기반했습니다. 그는 나이와 사라의 불임의 한계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며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습니다"(로마 4:18).
-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을 통해 희망을 이어가야 합니다.

추천영상: YouTube 이병근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희년교리)



알아드립니다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 연중 제28주일 강론 요약본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병환자 열 명을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절망을 동반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나병환자들은 예수님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제들에게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열 명 중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존재였지만, 그는 은총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받은 은총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은 "너희는 아홉 명 가운데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돌아온 그 한 사람에 속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나누고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은총을 받은 후, 그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감사는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고,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사에서 받은 은총에 감사드리며,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권지훈 베드로 신부

※ 미사 : 거룩한 표징으로 거행되는 제사

「표징」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표징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장미꽃 한 송이. 생일 때 케이크를 두고 축하해주는 모습.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표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징은 말과 그림, 동작, 그리고 그 밖의 감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들로 어떤 지시 또는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징은 우리 가톨릭에서 성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례헌장 59항에서는 성사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표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성사는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 몸의 건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향하며, 표징들로서 교육에도 기여한다. 성사는 신앙을 전제할 뿐 아니라 말씀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고 드러낸다. ... 그러므로 신자들이 성사의 표징들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찌우도록 제정된 이 성사들을 열심히 자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사와 전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표징으로 거행”되는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은 상징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전례 안에 드러나는 모든 표징은 장소, 말씀, 소리, 시간, 사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 줍니다. 전례 안에 거룩한 표징은 은총을 구체화시켜주고, 비밀을 밝혀줍니다. 동시에 표징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은 전례 안에서 표징을 만들고 표징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전례 안에서 인간은 영혼이 깃든 육체와 자신을 표현하는 영혼으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이미 말씀 안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내면성의 첫 육화가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말하고 듣습니다. 모든 동작과 행위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동작은 보이지 않는 내면성이 볼 수 있는 육화로 전개됩니다. 인간은 표현하고 이해합니다(로마노 가르디니).”

그러므로 미사는 거룩한 표징으로 이루어진 예식으로, 이 표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와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사에 대한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를 원한다면, 전례 안에 담긴 거룩한 표징이 무엇인지 묻고 찾아야 합니다.

대전교구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